

‘익산 황등제’ 위상 회복 첫걸음

익산시, ‘한국 고대수리시설과 익산 황등제’ 주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익산시가 황등제의 성격 규명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황등제의 위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는다.

시는 23일 익산시가 주최·(재)전북문화재단 연구원이 주관해 ‘한국 고대수리시설과 익산 황등제’를 주제로 익산 황등제 성격규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오후 1시30분부터 전북문화재단 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됐다.

우선 ▲1주제 - 한국 고대 수리시설 현황과 특징(충북대 성정용) ▲2주제 - 영남지역 수리시설(우리문화재단연구원 이보경) ▲3주제 - 전남지역 선사·고대 수리시설(나리문화연구원 고경진) ▲4주제 - 전북지역 수리시설 조사성과와 의의(전북문화재단 구원 권정현)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후에는 전북문화재단연구원 최완규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재홍(국립대), 이영철(대한문화재단연구원), 이홍중(고려대) 등 지정토론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익산 황등제는 고대부터 농업생산력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물을 공급하던 수리시설로 김제 벽골제, 정읍 늪제 등과 함께 호남의 3대 제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황등제는 지난 1935년 일제강점기 완주 경전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저수지의 기능을



익산 황등제 원경.

완전히 상실하고 농경지로 변화했다.

최완규 전북문화재단연구원 이사장은 “황등제의 축조시기는 문헌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근 남아있는 일부 제방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목재와 풀의 지연과학적 연대측정 결과 BC4~3세기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반도 최고(最古)의 수리시설로써

황등제를 상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익산 고대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기반이 된 황등제를 복원·정비하기 위한 시작점이다”며 “나아가 한반도 최고의 수리 시설 호남의 시작 황등제의 위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틴틴 창극교실’ 초등학생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 27~31일까지 누리집서 접수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초등학생이 대상인 국악교육프로그램 ‘틴틴 창극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틴틴 창극교실에서는 올 겨울방학 동안 수강생들에게 창극 전문가들이 판소리, 대본읽기, 안무, 전래놀이, 무대연기 등을 전수해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모집대상은 초등 1~6학년(09년생~14년생)으로 정원은 20명이며 수강료는 5만원이고,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가정 자녀는 무

료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원 지리산소극장(남원시립도서관 4층)에서 진행되고, 교육 종료 후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무대에서 ‘창극 춘향전’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기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성과 ‘우수’

전북문화관광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은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우수 지역주관처 포상심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 지역주관처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시, 도 각 2개 지역이 선정됐다.

재단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자,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등을 고려하고, 더욱 안전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비대면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문화누리 장터와 도내 관광 분야 문화누리 가맹점 발굴 ▲문화누리 투어 서비스 ▲전북문화누리 SNS 채널을 통해 도내 가맹점 소개와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가맹점 발굴 등이 공로로 인정받았다.

이기진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재



단 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 도농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의 융합성화를 위해

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1)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진명호 전북대 교수, 중국인문학회 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진명호 교수(중어중문학과)가 중국인문학회 회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중국인문학회는 1982년 출범해 중국의 문학, 어학, 역사, 철학 등 중국 관련 제분야의 연구를 통해 중국인문학 발전을 도모한 전국 규모의 학회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중국인문학’이라는 학회지를 연간 세 차례 발간해 우리나라 중국인문학의 연구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한중국학회, 영남중국어문화회, 한

국중국문화학회 등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매년 춘계 연합학회와 추계 연합학회를 진행하고 있다.

진명호 신임회장은 “중국 인문학의 우수하고 유구한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후속 세대들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 학술의 국제화를 통해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중국인문학회는 지난 12월 18일 ‘뉴노멀 시대, 중국 인문학 담론’이라는 주제로 추계 연합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중국고전문화 및 현대문학, 한중 문화교류, 중국어학, 차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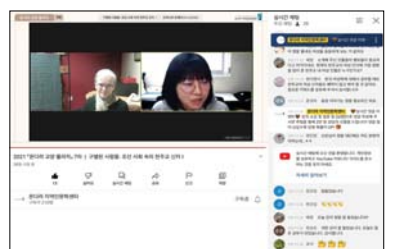
/정은성 기자

전주대, ‘온다라 교양 플라자’ 성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두 달간 진행된 2021 ‘온다라 교양 플라자’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온다라 교양 플라자는 문화·역사·인물 등을 주제로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故대천덕 신부의 딸이자 미국 유타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드버니 토레이 교수,일본 히토쓰바시 대학의 홍창국 교수, 리스메이칸 대학 배귀득 교수를 초청해 교육 인프라를 넓혔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지친 심신을 극복하기 위해 활력을 환원한 마음의 힐링 찾기를 주제로 꿈드림에힐링센터와 협업해 비대면 체험도 진행했다.



서정화 센터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 인문학이 갖는 공존·공감의 힘을 지역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HK+연구단 홈페이지(www.jackr/hk), 센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We are one. 열린 말씀 하나 된 우리!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2기 수료식

신천지예수교회 온라인 성경 교육 과정

2만 명 수료!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센터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의 112기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합니다.

2021년 온라인 신학 과정을 이수한
전 세계 약 2만 명의 수료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 2020년부터 2년간 전 세계 37,000여 명이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의 온라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21. 12. 26. (일) 정오 12시

▶ YouTube 신천지 공식 유튜브 전 세계 동시 송출
<https://youtube.com/user/ShincheonjiChurch>